

거야 불가론 vs 정권 심판론...尹정부 중간평가 민심 향방은?

“조기 레임덕” “정권 되찾기 기틀”...국힘·민주 사활 건 승부 선거제도 개편·공천 파동 재연·이재명 사법 리스크 등 변수 지역구도 완화·한동훈 출마·대권 잠룡들 행보 최대 관심사

4·10 총선 D-1년 쟁점과 전망

제22대 총선이 1년 앞으로 다가왔다. 내년 4월 10일 치러지는 총선은 출범 3년 차로 접어드는 윤석열 정부의 ‘중간 평가’ 무대인 동시에 정국 주도권 향배가 좌우되는 중요한 변곡점인 만큼, 여야가 사활을 건 한판 대결을 벌일 것으로 예상된다.

윤 대통령 임기 초반 ‘여소야대’ (與小野大) 한계를 절감한 여당으로서는 윤석열 정부 후반기 3년을 뒷받침할 안정적 의회 지형을 만들어야 한다. 야당으로는 대선과 지방선거로 이어지는 전국단위 선거 2연패를 끊어내는 동시에 빼앗긴 정권을 되찾아 줄 기틀을 마련하는 것이 과제다. 이에 따라 내년 총선은 여당의 ‘거야(巨野) 불가론’과 야당의 ‘정권 심판론’이 정면 격돌할 것으로 예상된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윤석열 정부 성공을 뒷받침하기 위해 총선 승리가 절실하다. 21대 국회에서 다수당이 더불어민주당의 벽에 가로막혀 국정과제 입법 대부분이 좌절됐다. 민주당이 쟁점법안 다수를 강행 처리해도 무기력했던 만큼, 과반 의석 확보가 지상 과제다. 국민의힘이 승리하면 윤석열 대통령의 3대 개혁(노동·교육·연금개혁) 입법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반대로 안정적 의석을 확보하지 못할 경우, 윤 대통령이 ‘조기 레임덕’에 빠질 수 있다는 시각이 적지 않다.

제1야당인 민주당은 대선과 지방선거 연패의 고리를 끊어내는 것이 급선무다. 대선과 지방선거를 잇달아 패배하며 중앙·지방 권력을 모두 내어준 상황에서 ‘최후의 보루’인 의회 권력을 지키기 위해 벼랑 끝 대결을 벌여야 하는 처지다. 대선·지방선거의 초라한 성적으로 재창당을 선언한 정의당은 거대 야당 구도를 깨고 도약의 교두보를 확보할지, 아니면 다시 한번 존재를 위협받게 될지 갈림길에 설 전망이다.

최근 여론조사에서의 여야 정당 지지율을 보면 민주당이 국민의힘을 오차범위 밖에서 앞서는 조사와 양당이 비슷한 지지율을 보이는 조사가 혼재돼 있고, 무당층 비율이 두 자릿수라 총선 승부 예측이 쉽지 않다. 이에 따라 여야는 서로에 유리한 정치적 프레임을 내세우며 민심 잡기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은 거대 야당의 입법 독주를 멈춰 세우고 윤석열 정부 개혁 과제를 완수하려면 여당이 과반 의석을 가져야 한다는 논리를 내세울 것으로 보인다. 반면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 외교·경제정책과 인사를 실패라고 규정하며 경제와 심판을 위해 과반 의석을 유지하게 해 달라고 호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런 가운데 국회에서 논의 중인 선거제도 개편

성사 여부가 대형 변수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여야는 물론이고 같은 당 안에서도 각자 유불리에 따라 입장이 확연히 나뉘는 만큼 논의가 난항을 겪으면서 기존의 소선거구가 유지되고 비례대표제를 손보는 수준에서 합의점이 도출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나온다.

또, 한일정상·한미정상회담 등 윤석열 정부의 대형 외교 이벤트에 대한 평가, 금융·부동산 시장 동향과 일자리 현황을 비롯한 윤석열 정부의 경제 성적표도 총선 승부에 영향을 줄 요인으로 꼽힌다. 여론의 공천 파동 재연 여부,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 관련 재판 결과 역시 선거판을 뒤흔들 수 있는 정치적 변수다.

지난 총선에서도 여전히 반복됐던 갈라먹기식 영·호남 지역 구도가 이번 총선에선 다소나마 완화될지도 관심사다. TK를 포함한 민주당의 전체 영남권 지역구 의원 수는 20대 댄 12명이었지만 7명으로 감소했다. 반면 총 28석이 걸린 호남에서는 한 곳을 빼고 민주당 후보들이 전원 당선돼 ‘뒤틀릴 위력’을 과시했다. 여론 일각에서는 지난 대선에서 윤 대통령이 광주·전남 지역 최고 득표율을 얻으며 선전한 점을 들어 지역 구도가 다소 완화될 것이라 기대도 나온다. 또 선거구제 개편으로 중대선거구가 도입되면 지역 구도도 상당 부분 완화되지 않느냐는 관측도 제기된다. 국민의힘은 대선 3개월 후 치러진 지난해 6·1 지방선거에서도 호남에서 소속단체장 후보들이 역대 최고인 두 자릿수 득표율을 얻는 성과를 내기도 했다.

차기 대권 ‘잠룡’으로 거론되는 이들의 행보도 주목받을 것으로 보인다. 여론에서는 윤 대통령 최측근으로 꾸준히 ‘등판론’이 제기된 한동훈 법무부장관 출마 여부가 최대 관심사다.

중진 의원 출신 원외통 국토교통부 장관과 높은 대중적 인지도를 가진 나경원 전 의원이 여의도에 재입성할지, 12년 만의 서울 탈환으로 재기에 성공한 오세훈 서울시장도 여의도에 측근 그룹을 입성시켜 정치적 타전을 마련할지도 주목된다. 비윤(비윤석열)계 유승민 전 의원의 출마 여부도 비롯해 대권 주자였던 안철수 의원 등의 움직임도 관심사다.

야권에서는 사법 리스크를 안은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거취 문제가 총선 때까지 내내 주목받을 전망이다. 총선 결과에 따라 이 대표 정치적 명운이 갈리는 것은 물론이다. 오는 6월 귀국 예정인 이낙연 전 총리와 정세균·김부겸 전 총리 등 문재인 정부 출신 잠룡들이 총선을 앞두고 어떤 행보를 보일지도 주목된다.

/임동욱 선임기자 tuim@kwangju.co.kr



전남대 학생들과 ‘천원의 아침밥’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지난 7일 오전 ‘천원의 아침밥’을 제공하는 광주 전남대학교 제1학생회관에서 학생들과 아침식사를 하며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나명주기자mjna@kwangju.co.kr

후쿠시마 방문 민주 의원들 “오염수 방류 우려 日 사회 전달 성과”

“국제적인 논의 기구 만들겠다”

더불어민주당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대책단’ 의원들이 9일 일본 후쿠시마 원전 일대 방문 결과와 관련, “오염수 방류에 우려하고 있다는 우리의 입장이 일본 사회에 분명히 전달됐다”고 자평했다.

이들은 지난 6일 일본을 방문한 뒤 8일 새벽 귀국했다.

양이원영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한국야당 후쿠시마’ 키워드로 포털사이트 야후재팬을 검색한 결과가 전날까지 234만건에서 260만건 이상으로 늘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양이 의원은 “한국야당 후쿠시마로, 해양 방출

에 반대”라는 기사 링크 모음이 몇 시간 동안 포털 대문에 걸려있었다고 한다”며 “일본 정부에 동조한 한국 정부와는 다른 야당의 입장을 전하는 형태로 TV에서도 많이 다뤘다고 한다”고 전했다. 그는 “방문 전후에 중국과 러시아 정부의 오염수 방출 우려 표명이 보도된 뒤로서 한국까지 우려한다는 모습이 연달아 전해져서, 방문 시기가 좋았다는 평가”라고 덧붙였다.

그는 연합뉴스와 통화에서도 “일본 사회에서도 일본 정부와 도쿄전력에 대한 불신이 커져, 한국 정부가 일본 정부에 동조하는 모습을 보여서 실망했다는 사람도 있었다”며 “이번에 저희가 가서 분명하게 ‘아니다’라고 말한 것이 의미가 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일 대립 구도에 치중하지 않고 양국 국민 모두를 보호해야 한다고 말한 것과 후쿠시마 피해자들을 존중하는 분위기가 좋았다는 평가가 있었다”며 “대체로 그런 기사가 많았고, 오히려 한국 언론의 일본어판 기사들에 ‘반일 비판’이 많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실질적인 성과가 부족했다”는 지적에 대해 “사람을 많이 만나지는 못했어도 다 상징적인 사람들”이라고 반박했다.

양이 의원은 “앞으로 국제적인 논의 기구를 만들어보려고 한다”며 “이번에 일본 쪽 의원들과 연결이 좀 됐고, 그쪽 선거 일정이 끝나면 보자고 이야기가 된 상태”라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이낙연 “민주당 잘 이끌어달라”...이재명 “그렇게 하겠다”

이낙연 장인상에 조문 행렬

미국 체류 도중 장인상을 당해 일시 귀국한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전 대표가 9일 이재명 대표의 조문을 받고 덕담을 주고받았다.

지난해 6·1 지방선거를 마치고 이 전 대표가 미국으로 떠난 이후 두 사람이 만난 것은 처음이다.

당내 친명(친이재명)·비명(비이재명) 계파 간 갈등이 완전히 봉합되지 않은 가운데 지난 대선

경선 맞수였던 두 사람이 만나는 점에서 관심이 집중됐지만, 현안은 언급하지 않은 채 안부만 주고받았다.

이 대표는 이날 오후 서울 강남구의 삼성서울병원 장례식장을 방문해 약 20분간 조문했다.

이 대표가 “(미국에서) 강연한 내용이 참 좋으시더라”고 인사를 건넸고, 이 전 대표는 “4월에 남북통일과 평화에 대한 대안 등을 담은 책을 내고, 6월 독일 베를린에 가서 특강을 한 뒤 귀국한다”

며 향후 계획 등을 소개하고 안부를 주고받았다고 동석했던 이병훈 의원이 기자들과 만나 전했다.

이후 “당을 잘 이끌어달라”는 이 전 대표 말에 이 대표가 “그렇게 하겠다”고 답했다고 한다.

이 의원은 “순수한 문상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고, 서로 덕담을 나누는 자리였다”며 “부활절이다 보니 예배를 마치고 오는 분들이 많아 문상이 밀려 있어 배려 차원에서 (이 대표가) 자리를 뒀다”고 설명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71 광주일보 71년 호남 최대 부수·열독률 1위

봄에 떠나는 그리는 섬여행

녹동-거문도 1시간20분

거문도+백도

광주-녹동항 셔틀 주말 확정 / 평일 20명 이상 출발

당일투어 1인 134,000원~

광주-녹동항 왕복 셔틀버스 포함
녹동항 출발 왕복 쾌속선, 백도 유람선 관광
중식 1회
서도→거문항 수송 1회 포함

1박2일 투어 1인 214,000원~

광주-녹동항 왕복 셔틀버스 포함
녹동항 출발 왕복 쾌속선, 백도 유람선 관광
민박(4인1실) 1박, 식사 3회
서도→거문항 수송 1회 포함

※상기 여행요금은 평일 출발 기준 요금이며, 주말 출발시에는 요금이 인상됩니다. 광주-녹동항 셔틀버스는 기상 및 기타 사정에 따라 운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후원: 삼도해운, 플레티늄 | 승선문의: 061-834-3434 | 예약센터: 메이투어: 062-385-0515 | 투어나우: 062-575-8019

건물·주택 리모델링, 신축, 지붕공사

건축시공, 설계, 견적, 리모델링, 상담문의

전용 리모델링

칼라강판 지붕공사

주택 (외, 내부) 리모델링

전원주택신축

공장신축

징크판넬시공

창호(삿시)교체

농막

옥상스틸방수

MODERN M 모던건설 시공문의 전상하 T. 062)531-3530, H. 010-9229-3530

사무실: 광주 북구 자미로45(신안동) | 공장: 광주 서구 서항2길3(서항동)